

『경제사학』 제50호
2011년 6월 pp. 39-59

『미국역사통계』의 진화*

김 두 얼**

2006년에 『미국역사통계: 새천년판』이 발간되었다. 총 5권 4,000여 쪽으로 이루어진 이 통계집은 식민지기로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정치·경제·사회 관련 주요 통계들의 시계열을 망라하고 있다. 약 30년 전인 1975년에 발간된 『미국역사통계: 200주년 기념판』과 비교해 볼 때 『새천년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미국 경제사학계의 연구 축적이 가져온 자연스런 성과였다. 본 논문은 『미국역사통계』의 진화과정에 대한 개괄을 통해 『새천년판』의 의의를 되짚어보고, 우리나라 역사통계 작업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궁구해보기로 한다.

핵심주제어: 『미국역사통계』, 『미국통계요록』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N01, N91

I. 서 론

2006년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에서는 『미국역사통계: 새천년판』(*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Millennial Edition*, 이하 『새천년판』) 출간을 기념하는 모임이 열렸다. 1년에 두 번씩 열리는 캘리포니아대학 경제사집단(All-U.C. groups in Economic History) 학술대회의 특별행사로 마련된 이 모임에는 많은 경제사학자들이 모여 10여 년에 걸쳐

* 본 논문은 2010년 경제사학회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제1회 ‘세계 통계의 날’ 기념 통계발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작성과정에서 도움 말씀을 주신 Richard Sutch 교수, 고선 박사, 그리고 자료정리에 도움을 주신 임효정 연구원께 감사드린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 E-mail: duolkim@kdi.re.kr

진행된 『새천년판』 작업의 완성을 자축하고 기념하였다.¹⁾

『새천년판』의 발간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1975년 간행된 『200주년 기념판』(*Bicentennial Edition*)이 2권 1,200여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새천년판』은 5권 4,000여 쪽으로 확대되었다. 수록된 항목은 8,000여 항목에서 12,500여 항목으로 50%가량 늘어났으며, 많은 항목의 시계열은 보다 양질의 추계로 대체되고, 또 과거 방향으로도 크게 확장되었으며, 새로운 항목들도 추가되었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내용적 심화가 이루어진 이면에 정부로부터 민간으로의 발간주체 이전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9년 처음 간행되었을 때부터 1965년, 그리고 1975년의 두 차례 개정판까지 『미국역사통계』 작성 및 출판 작업은 매년 발간되는 『미국통계요록』(*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업무의 한 부분으로 센서스국(U.S. Census Bureau)이 담당하였다. 이에 비해 『새천년판』은 캠브리지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되었고, 6명의 편집자들(Editors in Chief)은 대부분 경제사를 전공하는 대학교수들이었다.²⁾ 준비과정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부 재정지원을 하였지만 다양한 민간기부가 큰 역할을 하였으며, 실제 업무 역시 실질적으로는 민간이 모두 담당하였다.³⁾

역사통계 발간의 주체가 왜 바뀌었고 그것이 통계서 작업에 대해 내포하는 함의가 무엇인지 반추해 보는 것은, 『미국역사통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미국에서 경제사 연구의 발전, 역사학과 경제학 간의 상호작용, 나아가 학계의 연구와 정책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역사통계』가 지난 60여 년 동안 진화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⁴⁾ 1949년에 발간된 『미국역사통계』는 미국 정부가 19세기 말부터 매년 간행해 오던 『미국통계요록』(*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이하 『요록』)의 부록이었다. 따라서

1) 이 행사를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학에서 갖게 된 데에는 『새천년판』의 총괄편집자(General Editor)인 서치(Richard Sutch)와 카터(Susan Carter)가 이 대학 소속인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2) 편집자 6명은 카터, 가트너(Scott Gartner), 헤인즈(Michael Haines), 올스테드(Alan Olmstead), 서치, 라이트(Gavin Wright)이다. 이 가운데 정치학자인 가트너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오랜 기간 미국경제사 연구를 주도해 온 학자들이다.
 3) Carter and Sutch(2011).
 4) 『새천년판』의 부록으로 수록된 Chiswick(2006)은 『미국역사통계』 발간을 위한 기획과정,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실무적·행정적 업무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통계 계열의 선택 및 확장에 있어 학계와 정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미국역사통계』가 처음에 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요록』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런 점에서 제Ⅱ절은 『미국역사통계』의 전사(前史)라고도 할 수 있다. 제Ⅲ절에서는 1949년판부터 1975년판까지 『미국역사통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새천년판』 등장의 의의를 되새겨 본다. 제Ⅳ절에서는 『새천년판』의 특징을 살핀다. 결론인 제Ⅴ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 뒤, 『새천년판』이 우리나라 역사통계 작업에 던져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기로 한다.

Ⅱ. 『미국통계요록』: 『미국역사통계』의 전사(前史)

세계 각국 정부들은 여러 가지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는데, 크게 보면 이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부활동 통계라 부를 수 있는 것들로, 정부가 조세를 얼마나 거두어들였는지, 몇 명의 공무원을 고용하였는지, 한 해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지출하였는지, 화폐를 얼마나 발행하였는지 등과 같이 정부의 활동을 보여주는 수량적 정보이다. 이 같은 정부활동 통계들은 기본적으로 국민 혹은 의회가 정부활동을 감독하는 데 활용되며, 행정부가 스스로 운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는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들여 자료를 수집·집계한 정부집계 통계로 대표적인 것이 인구총조사(census)이다. 오늘날 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개 십년마다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들여 국민들의 수를 파악하고, 소득이나 생활방식 등 관련된 중요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것은 국가경제 운영에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된다. 인구 외에도 정부는 사회·경제 관련 통계를 다양하게 수집하는데, 이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각국 정부들이 사회·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미국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정부가 통계를 생산하고 발표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양상은 1789년 건국 당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센서스이다. 미국 정부는 건국 이듬해인 1790년에 최초의 센서스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매 10년마다 어김없이 수행해 왔다. 아울러 인구뿐 아니라 공업, 농업 등 주요 산업부문에 대한 센서스도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져 왔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통계를 공표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단, 『미국역사통계』의 의의를 살펴본다는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본 논문이 다룰 주요 대상은 아니다.⁵⁾ 본 논문의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많은 통계의 집계와 발표가 오늘날과 같은 『미국역사통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는 점, 보다 직접적으로는 19세기 말에 『미국역사통계』의 전신인 『요록』이 발간되게 된 배경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정부가 집계통계뿐 아니라 집계를 위해 수집한 원자료의 공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준칙주의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가피하게 공개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차 자료들을 과감하게 공개하는 정책은 다양한 통계분석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2000년대에 『새천년관』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두 가지 요인 가운데 후자에 대해서는 『새천년관』을 집중적으로 다룰 제IV절에서 상술하기로 하고, 본 장에서는 전자, 즉 『요록』의 변천과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미국 정부는 1878년에 『요록』을 처음 간행하였고, 이후 오늘날까지 거의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⁶⁾ 『요록』은 수많은 정부 내 부처들이 다양한 형태의 통계를 양산하는 상황에서, 정책입안자 혹은 연구자가 이러한 통계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아울러 보다 상세한 자료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자료(reference)로 마련되었다. 처음에는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소속 통계국(Department of Statistics)이 작성을 주관하였는데, 이후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 193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센서스국(U.S. Census Bureau)이 발간을 담당해 오고 있다.⁷⁾

『요록』 발간 초기에는 재정수입 및 지출, 발권, 관세 및 무역, 우편 등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부활동 통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아울러 인구·산업부문별 생산자수, 생산량, 매출액 등 정부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요약·수록되었다. 이 통계들은 대개 전국 단위의 정보였으며, 상당수는 과거로부터 발간시점까지의 장기시계열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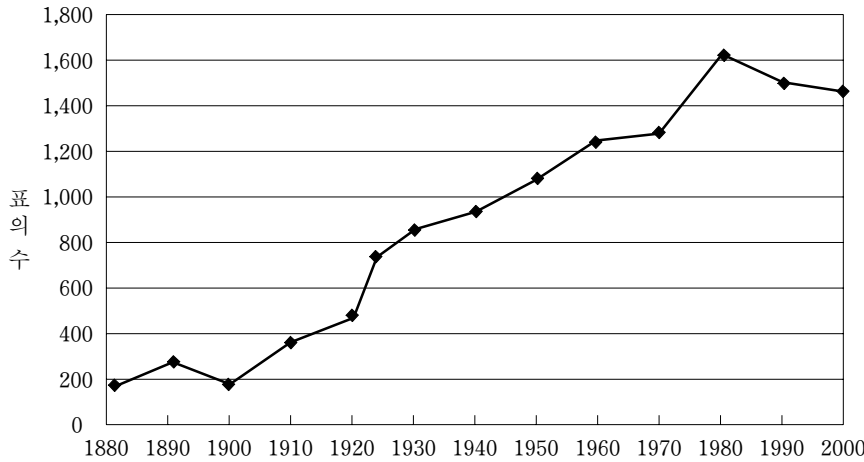
이후 『요록』에 수록된 항목들은 지난 100여 년 동안 크게 증가해 왔다(그림 1 참조). 19세기 말에는 항목의 수 또는 개별 항목을 담은 표의 수가 200개 안

5) 이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Anderson(1988), Dodd(1993) 등을 참조.

6) 『요록』에 수록된 정보는 모두 <http://www.census.gov/compendia/statab/>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1호부터 최근까지 발간된 책자들은 모두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7) 주관 부처의 변화에 대해서는 Chiswick ed.(2006: 819), 각주 2를 참조.

그림 1 『미국통계요록』에 수록된 표의 수, 1880-2000



자료: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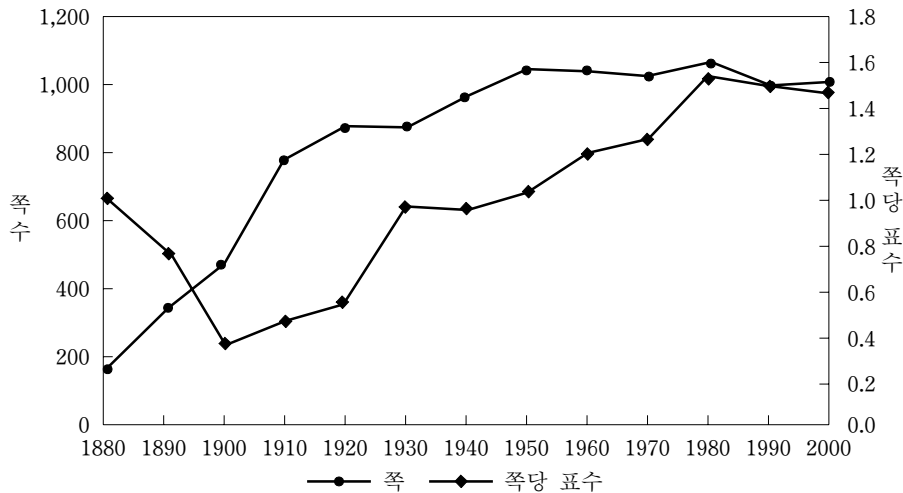
밖을 유지하던 것이 이후 빠르게 증가해서 1980년에는 전보다 8배가 증가한 1,600개 수준이 되었으며, 현재는 다소 줄어든 1,400-1,50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팽창은 기본적으로 교육, 사법, 지방재정 등 초기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주제들이 계속 새로이 추가되고, 각 주제 내에도 세부 항목들이 더해진 데 따른 결과이다. 물론 새로운 통계가 추가되는 것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정보들이 삭제되는 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 항공산업, IT산업 관련 통계는 새로이 추가되는데 비해, 농업 관련 통계 항목이 축소되었다.

『요록』의 수록 항목과 내용은 꾸준히 변화해 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1920년대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우선 수록된 항목 또는 표의 수 측면에서 볼 때 1920년 460개이던 것이, 1930년에는 860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1922년에서 1924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 『요록』은 큰 개편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항목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⁸⁾

1920년대에 이처럼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집계하는 통계가 이 시기에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물가, 고용 관련 통계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의 작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이전에도 정부는 거시경제지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였고, 『요록』에도 수록되었다. 예를 들어, 물가정보를 보면 1870년

8) "Letter of Submittal,"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24*(1925: XVII-XVIII).

그림 2 『미국통계요록』의 두께(쪽수)와 각 쪽에 평균적으로 수록된 표의 수, 1880-2000



자료: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각 연도.

대 말에 『요록』에는 이미 주요 상품가격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제 전체의 물가변동을 하나의 수치로 보여주는 소비자물가지수나 도매물가지수 같은 지표는 1924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집계되었고, 정보의 대표성 때문에 『요록』에 곧바로 수록되었다.⁹⁾ 이후 『요록』의 “물가”편은 여러 주요 상품가격을 나열하던 과거의 형식에서 벗어나, 물가지수를 중심 정보로 제공하면서 몇몇 주요 상품가격이 이것을 보조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물가통계보다 시기적으로는 뒤이지만 거시경제지표를 대표하는 국민소득 추계도 이루어졌으며 이 역시 『요록』에 수록되었다.

이처럼 정부가 생산하는 통계가 증가하고, 정부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역시 늘어남에 따라 『요록』에 수록되는 정보가 많아진 것은 당연하며, 그에 따라 『요록』의 두께는 점점 늘어났다. 처음 발행된 1878년판은 160쪽 정도이던 것이 1900년판은 470쪽으로 세 배가 늘어났고, 1925년에는 870쪽으로 다시 이전의 두 배로 확대된다(그림 2 참조). 하지만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는 『요록』의 목적 때문에 외연적 확장이 마냥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 대략 1950년대를 정점으로 책의 분량은 1,000쪽을 크게 넘지 않는 수준으로

9) 한편, 다른 통계들과 마찬가지로 거시지표의 작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에, 노동부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처럼 통계 작업을 항시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들이 신설되었고, 이들의 업무와 규모가 점차 확장되어 갔다.

결정되었으며, 이것은 오늘날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요록』의 지면이 1950년대 이후 일정 수준에서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요록』에 수록된 항목의 수는 1980년까지도 계속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지면당 수록된 표의 수는 1900년경 약 0.4개이던 것이 1980년 이후로는 1.4개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면당 밀도의 증가는 활자의 조절이나 여백의 축소, 숫자단위 조정과 같은 다양한 편집상의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도 본 논문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시계열의 조절로,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는 시계열들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항목당 소요 지면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계열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이 하여금 이전 판본을 찾아볼 수밖에 없게 만듦으로써 불편을 안겨주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려가 센서스국으로 하여금 역사통계집을 별도로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하지만 역사통계집 발간이라는 기획은 이러한 편집상의 고려를 넘어서는 구상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요록』을 보조하는 가장 바람직한 역사통계집의 형태는 현재 발행되는 『요록』에 수록되어 있는 개별 항목들에 대해 과거 시계열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요록』의 항목과 역사통계집의 항목이 일대일로 대응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통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통계집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혹은 불가능한 과제이다. 『요록』에 들어 있는 많은 항목들은 20년 전 『요록』만 보더라도 수록되어 있지 않거나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은 통계인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들의 장기시계열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추계과정이 요구된다. 반대로 과거 『요록』에 수록된 통계들을 그대로 신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적 관점에서 불필요하기도 하고 이보다 개량된 추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에는 『요록』에서 배제되거나 아예 추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통계들은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거나, 장기적인 경제변동을 파악하려면 중요한 정보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정보들을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역사통계집을 만든다면, 이 역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발간되는 『요록』과의 연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역사통계집 작성은 단순히 지금까지 발간된 『요록』들에 담겨진 정보

10) U.S. Bureau of the Census(1949: V).

를 참고하기 편리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뛰어넘어, 역사통계집이 어떤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센서스국이 『미국역사통계』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역사통계』의 모습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모습은 2006년 완성된 『새천년판』이 발간될 때까지 50여 년간 『미국역사통계』의 기본구조로 유지되었다.

Ⅲ. 『미국역사통계』, 1949-1975

『미국역사통계』를 발간하는 기획이 어떤 맥락에서 처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Chiswick(2006: 820)은 센서스국이 이 사업을 주도한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1940년대 초 센서스국의 통계보고부(Statistical Reports Section) 부장이었던 얼만(Morris Ullman)은 센서스국이 발간하는 통계를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얼만은 1942년 『요록』을 발송하면서 『요록』 이용자들의 의견을 묻는 반송엽서를 동봉하였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보다 상세한 지역별 자료, 그리고 보다 긴 역사시계열을 수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기획이 마련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역사통계집의 작성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1949년에 발간된 『미국역사통계』 초판 서문은 학계 혹은 민간 측 요청이 중요한 시발점이었음을 시사한다. 사회과학연구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가 1945년에 역사통계집 작성의 필요성을 센서스국(Bureau of the Census)에 제안하면서, 1947년부터 역사통계집 작성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1947년부터 『미국역사통계』 발간사업이 시작되었고, 2년간의 작업을 거쳐 1949년에 간행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¹¹⁾

어느 쪽이 보다 정확한지, 또는 어느 쪽이 보다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단, 위 두 가지 주장은 서로 병립할 수 있는 내용들이며, 오히려 양자를 통합해서 보는 것이 당시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부와 학계 모두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통계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어느 시점에서 양자 간의 의견교환이

11) U.S. Bureau of the Census(1949: II). SSRC의 역사에 대해서는 Worcester(2001)를 참조.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의 『미국역사통계』인 1949년판은 미국 통계 『요록』의 부록으로 발간되었다.¹²⁾ 이러한 형식은 단순히 발행방식에서 뿐 아니라 제작과정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작 측면을 보면, 수록된 통계들은 모두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들이 책임 편집한 것으로 되어 있다.¹³⁾ 예를 들어, B장. “인구 및 이주”의 경우, 인구, 국내 이주 등의 정보는 센서스국이 담당하였고, 이민 및 영주권 관련 통계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내 통계책임자인 에커슨(Helen Eckerson)이 담당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¹⁴⁾

내용을 보더라도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통계가 『요록』에 수록된 통계들이다(표 1 참조). 『요록』이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활동을 담은 통계, 그리고 정책적 필요로 미국 정부가 수집한 통계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참고자료임을 고려할 때, 최초의 『미국역사통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요록』의 부록이었던 셈이다.

이후 『미국역사통계』는 몇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친다. 원래 『미국역사통계』는 10년마다 개정판을, 그리고 개정판 사이에 5년마다 최근 통계와 개정 수치를 반영한 수정본을 발간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¹⁵⁾ 이에 따라 5년 뒤에는 1952년까지의 증보판(*Continuation to 1952*)이 발간되었고, 다시 5년 뒤인 1960년에는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1960년판의 경우 단순히 발간시점까지의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변화를 담고 있다. 우선, 통계의 출발점을 건국연도가 아닌 식민지기로 확장하였고, 이에 맞추어 부제도 건국연도가 아닌 식민지기부터로 바뀌었다. 둘째, 기존 시계열 확장뿐 아니라 새로운 통계를 다양하게 포함하였다. 그로 인해 1949년판이 약 370쪽 규모의 한 권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두 권으로 늘어났다.

1975년에는 세 번째 판인 『200주년 기념판』이 발간되었다.¹⁶⁾ 여기에는 SSRC가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는 공식적으로 표명되어 있지 않다. 몇몇 새로운 주제들이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1960년판과 비교할 때 기존 시계열을 확장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12) U.S. Bureau of the Census(1949: II).

13) U.S. Bureau of the Census(1949: IV).

14) U.S. Bureau of the Census(1949: IV).

15) Chiswick ed.(2006: 819).

16) 1965년에는 1962년까지 확장한 개정본(*Continuation to 1962*)의 발간이 있었다.

표 1 『미국역사통계』의 판본별 구성 비교

항목(2006년 『새천년판』 기준)		장(chapter) 구성 ¹⁾				
		1949년 ²⁾	1960년	1975년	2006년	
인구	인구구성	B(1)	A	A	Aa	
	인구동태	C	B(1)	B(1)	Ab	
	국내이동	B(2)	C	C	Ac	
	이민				Ad	
	가족구성				Ae	
	코호트				Af	
	미국원주민				Ag	
노동 및 복지	노동	D	D	D	Ba	
	노예				Bb	
	교육		H(1)	H(1)	Bc	
	건강		B(2)	B(2)	Bd	
	불평등, 빈곤				Be	
	사회보장, 공적부조		H(2)	H(2)	Bf	
	비영리, 종교단체				Bg	
경제구조와 성과	국민소득	A(1)	F(1)	F(1)	Ca	
	경기변동				Cb	
	물가	L	E	E	Cc	
	소비지출		G	G	Cd	
	저축, 자본, 부	A(2)	F(2)	F(2)	Ce	
	지리, 환경		J	J	Cf	
	과학, 기술, 생산성		W	W	Cg	
	기업조직		V	V	Ch	
금융시장과 제도	N	X	X	Cj		
산업	농업	E	K	K	Da	
	자원산업	임업, 어업	F	L	L	Db
		광업	G	M	M	
		에너지		S	S	
	건설, 주택	H	N	N	Dc	
	공업	J	P	P	Dd	
	상업		T(1)	T(1)	De	
	교통	K	Q	Q	Df	
통신		R	R	Dg		
서비스 및 유틸리티		T(2)	T(2)	Dh		
정부 및 국제관계	개정 및 정부고용	P	Y(1)	Y(1)	Ea	
	선거 및 정치				Eb	
	사법		H(3)	H(3)	Ec	
	국방		Y(2)	Y(2)	Ed	
	국제무역, 환율	M	U	U	Ee	
	부속지역				Ef	
	식민지기 통계		Z	Z	Eg	
남부연방 ³⁾				Eh		

주: 1) 본 표의 알파벳은 각 장(chapter) 번호들이다. 예를 들어, 1949년 판본의 경우, 'B'는 인구 관련 장 B. "인구 및 이주"를 지칭한다.

2) 1949년의 경우, 알파벳 중 I와 O는 숫자 1과 0 등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할당되지 않았다.

3) '남부연방'은 남북전쟁 기간 중 남부주들의 연합체 관련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200주년 기념판』 서문에는 이렇게 된 이유로 재정문제를 언급하고 있다.¹⁷⁾ 하지만 재정적 문제는 단순히 재원확보의 문제였다기보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과거 통계를 그대로 수록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역사통계집이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경제사학계 등을 중심으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수량정보의 축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모두 수용할 만큼 재원을 마련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던 것이 보다 큰 원인이라고 추론된다.

아울러 『요록』의 부록으로써 역사통계를 만드는 것이 전보다 어려워진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느 한 시점에 『요록』에 수록된 항목들에 대해 과거의 시계열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요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요록』에 수록된 정보들을 그대로 정리해서 수록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역사통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으며, 역사통계와 『요록』의 새로운 관계정립은 역사통계의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센서스국이 발행하는 『미국역사통계』는 사실상 1975년에 완결되었으며, 이후 『요록』의 부록으로써 『미국역사통계』를 발전시키는 작업은 중단되었다. 센서스국은 『미국역사통계』에 최근까지의 시계열을 추가하기보다는 『요록』에 두 자료를 대조하는 비교표, 즉 『요록』의 어떤 항목에 대해 장기시계열을 확인하려면 『미국역사통계』의 어느 항목을 참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표를 수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미국역사통계』는 2006년 『새천년판』 발간 때까지 아무런 개정 혹은 증보판 발간 없는 3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IV. 『미국역사통계: 새천년판』

1. 새천년판 발간 진행과정

1949년 이래로 센서스국이 발간한 『미국역사통계』는 미국경제 관련 장기시계열에 있어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권위 있는 참고문헌으로 사용되었으며, 『미국역사통계』는 일종의 고유명사화 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976년 이후 더 이상 개정판을 내지 않는데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으며,

17) U.S. Bureau of the Census(1975: XI).

그 결과 1993년에 와서 『미국역사통계』의 개정판 발간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¹⁸⁾ 센서스국은 개정판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이 작업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연 어떤 점에 대해 어려움을 피력하였는지에 대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미국 경제사학계를 주도하는 학자들은 인적·물적 자원을 모아 개정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10여 년에 걸친 장기간의 작업을 통해 2006년에 이르러 『새천년판』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두 명의 총괄책임을 포함한 6명의 편집자, 총 84명의 학자들이 담당 항목을 책임 편집하였으며, 수 백 명의 학자들이 검토자로 참여하였다.¹⁹⁾ 이 밖에도 많은 대학들과 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작업을 지원하였다.²⁰⁾ 이러한 집단적 노력이 없었다면 『새천년판』의 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편집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들의 전공분야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역사통계』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정치·문화·사법 등 사회 전반을 망라하는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하지만 『새천년판』의 편집진 나아가 각 항목 작성자들의 주류는 경제사학자들이었다. 이처럼 경제사학자들이 이 작업을 주도하게 된 이유는 1950년대 이래로 경제사 분야가 역사에 대한 수량적 연구를 선도해 왔기 때문이다. 19세기 미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철도의 역할을 사회적 자원 절감량(social saving) 측정을 통해 평가한다거나, 식민지기 미국의 대외거래에 대한 영국 정부의 통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계산해 봄으로써, 미국 독립전쟁의 원인을 추론하는 작업 등이 대표적인 초기 연구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오늘날 “Cliometrics”, 우리말로 수량경제사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신조어로 불리면서 경제사 연구의 주류로 자리잡게 되었다.²¹⁾ 또한 수량경제사 혁명(Cliometric revolution)을 통해 미국경제사의 새로운 해석을 주도했던 포겔(Robert Fogel)과 노스(Douglass North)는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에 노벨경제학

18) Carter *et al.* eds.(2006: xi), Vol. 1; Carter and Sutch(2011).

19) Carter *et al.*(2006: xv-xvii, xxiii-xxiv.), Vol. 1.

20) Carter *et al.*(2006: xix), Vol. 1.

21) 19세기 미국사에서 철도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는 Fogel(1964),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Walton(1971) 등이 대표적이다. Cliometrics란 역사의 신인 “Clio”와 측정을 나타내는 “metrics”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단어의 유래와 관련해서는 미국 Cliometric Society의 웹사이트(<http://cliometrics.org/about.htm>)를 참조. McCloskey(1987)는 수량경제사의 연구사를 간략하게 개괄하고 있으며, Atack and Passell(1994), Walton and Rockoff(2005), Engerman and Gallman(2000) 등은 수량경제사 연구를 중심으로 미국경제사를 집대성하고 있다. 한편, Kim and Park(2011)은 우리나라 경제사에 대한 수량경제사적 접근의 성과와 과제를 개괄하고 있다.

상을 공동수상하였다.²²⁾ 수량경제사적 접근을 통한 연구성과, 그리고 이러한 접근이 사회·정치 등 관련 연구로도 확산되어 간 점이 『새천년판』 작성을 경제사학자들이 주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새천년판』 작업을 주도한 편집자 6명이 모두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의 교수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스탠포드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의 케빈 라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은 모두 캘리포니아대학들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도 잠시 언급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가 『새천년판』의 편집이라는 대형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지리적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1980년대 이래로 미국경제사 연구를 주도하는 중심지역으로 부상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캘리포니아대학의 경우, 10개 캠퍼스 가운데 대다수의 경제학과에 2-4명 정도의 경제사학자들이 교육과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왕성한 연구활동을 통해 미국의 경제사 연구를 주도해 왔다. 아울러 스탠포드, 남캘리포니아대학(USC),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 등 캘리포니아 소재 사립대학들의 각 학교 경제학과에서도 다수의 경제사학자들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 왔다. 이 학교들은 박사과정을 통해 매년 새로운 경제사 연구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경제사 관련 강좌뿐 아니라 매주 경제사 세미나 운영을 통해 각지의 연구자들을 수시로 초청, 새로운 연구결과를 토론하고 있다. 나아가 1970년대에 처음 시작되어 1980년대에 본격화된 캘리포니아대학 경제사집단 학술대회는 1년에 두 차례씩 캘리포니아 지역 연구자뿐 아니라 각지의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결과를 전파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²³⁾ 이러한 인적 자원과 교류를 통한 협력이 미국역사통계 발간과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시킬 수 있었던 기반이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학술활동이 가능하였던 데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주요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2. 『새천년판』의 주요 특징

『200주년 기념판』과 비교해 볼 때 『새천년판』에는 시계열을 현재 시점까지 확장하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 중 중요한 것들을 열거하

22) 이들의 삶과 연구에 대한 개괄로는 Goldin(1995) 참조.

23) allucgroup.iga.ucdavis.edu는 캘리포니아대학 경제사집단 학술대회의 연혁과 발표논문 등을 담고 있다.

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각 주제별 통계의 서두에 과거에는 통계의 출처만 나열되었던 반면, 『새천년판』에서는 개괄논문(survey)에 가까운 자료 소개가 제시되었다.²⁴⁾ 이 소개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주요 자료들의 비판적 평가로부터 시작해서 해당 자료들을 활용한 관련 주요 연구결과들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괄은 자료의 적절한 이용을 돕고 향후 연구에 필요한 기반으로 작용하도록 고안되었다.

둘째, 통계의 시계열 확장 및 세부 내용 추가 등으로 인해 분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법집행, 법원, 사법제도” 관련 항목을 보면 『200주년 기념판』이 11쪽인 데 비해 『새천년판』은 109쪽으로 10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관련 주제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베커(Gary Becker)는 1968년에 「죄와 벌: 경제학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통해 범죄의 억지를 위해 어떤 방식의 접근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기초를 제시하였는데,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이 이어지면서 형사정책은 경제학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게 되었다.²⁵⁾ 아울러 1980년대 후반 이후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갔는데, 이 역시 사법제도 일반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²⁶⁾ 이처럼 법경제학적 주제들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장기통계 작업에 반영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련 내용의 수록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또 이를 통해 연구자들의 작업을 지원하도록 마련되었다.

셋째,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항목들이 도입되었다.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통계 항목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건강 항목은 1949년판에는 아예 수록되지도 않았던 것이 관련 주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60년판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75년판에 이르면 정부가 집계하는 보건 관련 항목들, 즉 1인당 의료비 지출, 병원 시설, 의료종사 인력, 의료보험 등의 정보들이 대거 추가되었다. 아울러 『새천년판』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의 시계열을 확장하고 상세히 만드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영양섭취 및

24) 과거에는 책 앞쪽에 모든 통계표의 자료 및 출처가 함께 제시되었던 데 비해, 『새천년판』에서는 각 통계표 하단에 출처가 기술되어 있다.

25) Becker(1968). 이후 미국의 범죄 혹은 형사정책 관련 연구에 대한 개괄로는 Levitt(2004), Dills, Miron, and Summers(2008) 등을 참조.

26) 예를 들어, La Porta *et al.*(1998, 1999), Glaeser and Shleifer(2002), Djankov *et al.*(2003) 등은 법제도가 금융시장 혹은 기업소유구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선구적 작업들이다.

건강상태 통계들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넷째, 다양한 1차 자료들을 이용해서 집계한 통계들이 수용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장 추계일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물가수준, 임금, 소유 자산 등을 측정함으로써 생활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연구하였다. 아울러 소득수준이 실제로 인간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사망률 혹은 기대여명(life expectancy)처럼 수명과 관련된 통계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런 가운데 경제사학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신체와 관련된 수량적 정보를 추적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신장이나 체중, 질병 상태 등 인간의 생물학적 상태들을 반영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체측정학(Anthropometrics)라는 이름으로 경제사 연구의 주류 분야 중 하나로 정착하였다.

인체지수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동안 가장 활발하게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신장정보이다. 신장이 이처럼 주목을 받은 것은 인체지수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풍부하게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인간의 키가 영양상태와 명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신장은 그 사람의 순 영양상태, 즉 섭취한 영양분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영양분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광범위한 의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시기,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신장은 이들의 영양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동시대의 사회경제 상황, 소득수준 혹은 보건환경 등에 대한 정보들을 결합할 경우 사회적 조건과 물질적 환경이 실제 인간의 삶에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신장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미국경제사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로 『새천년관』에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게 되었다.²⁷⁾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건국 초기부터 정부나 민간에서 다양한 원자료들을 잘 보존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이 원자료들을 공개해 왔다는 사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장 자료의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는 남북전쟁 참전군인 관련 자료였는데, 이것이 보존·공개되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연구가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미국 정부는 70년이 지난 모든 센서스 자료의 원본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왔으며, 이 자료들을 마이크로필름화함으로써 문서보관소에 직접 오지 않고도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²⁸⁾

27) 인체측정학과 관련된 개괄로는 Fogel(2004), Steckel(1995; 2008)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원자료들을 이용한 추계 및 분석 작업은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방대한 자료를 입력하고 컴퓨터를 통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 인력고용, 컴퓨터 기자재 및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등을 통해 미국 정부가 이러한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는 것이 자료의 공개만큼이나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도 인지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이 원자료를 이용해서 추계한 신뢰성 높은 통계들이 『새천년판』에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새천년판』이 기본적으로 1950년대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온 수량경제사의 연구성과를 통계집의 형태로 집대성한 결과라는 점을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시켜 준다.²⁹⁾ 유효 시효를 지난 정부문서들을 과감하게 공개하는 미국의 정책들은 계속해서 미국경제사 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V. 결 론

『미국역사통계: 새천년판』은 미국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물론, 경제의 장기적 변동을 연구하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에게 표준적인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많은 나라의 경제사학자들이 『미국역사통계』를 전범으로 해서, 자국의 역사통계를 작성하는 작업들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이 확산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경제를 비교사적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작업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경제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실증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역사통계』의 진화과정은 역사통계집을 만드는 작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통계집 작성이 단순히 과거

28) 현재는 1930년대 정보까지 공개되고 있으며, 19세기 마이크로필름 자료는 NARA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역사자료와는 달리 전산화된 형태로 센서스 정보가 처리된 최근의 것들은 정부가 관리하는 센서스 정보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미국의 자료공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사한 형태로 통계청이 KDI 등에 개설한 사무소를 통해 센서스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9) 수량경제사의 초기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McCloskey(1987) 등을 참조. 한편, 『새천년판』이 수량경제사적인 연구성과를 통계집의 형태로 집약한 것이라고 한다면, 캠브리지대학 출판부가 2003년에 3권으로 완간한 『캠브리지 미국경제사』(*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는 시대별 주요 주제들에 대한 개괄논문을 통해 집대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ngerman and Gallman, eds.(2000).

의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는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의 경제를 이해하는 이론적·실증적 기반이 필요한 작업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추이를 파악하는 작업임을 『미국역사통계』의 발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서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과 정부의 여러 기관들에서 진행되어 온 역사통계 작업을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통계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정부기구들은 그 동안 정부가 집계해 온 통계들을 정리해서 역사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한편, 경제사학계에서는 2006년에 약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식민지기 국민소득 추계를 작성하는 작업을 완결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장기시계열을 구축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학계가 생산한 통계와 정부통계가 어떻게 일관된 시계열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향후의 작업을 원활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기초적인 통계를 정립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될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된다면, 그 때에는 미국의 예에서와 같이 정부와 학계 간의 협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갈지에 대해 새로운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통계를 구축하는 작업은 학술적으로 뿐 아니라 정부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에 대한 관심은 매우 지대하다.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험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전수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인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역사통계 구축작업은 필수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역사통계 작업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오늘날 부작용 역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최근 세계 역사학계에서는 왜 유럽이 다른 지역들보다 먼저 공업화 혹은 근대화를 이룩하게 되었는가라는, 이른바 “대분기(The Great Divergence)”가 핵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간 장기경제성장을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큰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많은 경제사학자 혹은 역사학자들의 관심사가 되는 주제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장기통계에 근거한 연구들이 배출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학 연구에 중심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이 부족할 경우, 한국은 역사 연구라는 학문적 경쟁의 장에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향후 돌이키기 힘든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학계의 동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학자들의 노력,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시계열 작성과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정부통계 작성에 사용된 원자료를 비공개 원칙으로 보존하거나 아예 폐기해 버리는 것은 수많은 연구의 가능성을 사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기회의 소멸은 단순히 학자들의 지원문제로서가 아니라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이 수립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향후 적절한 원칙에 입각해서 원자료 공개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장기적 변동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해 지기를 기원한다.

(투고일: 2011. 3. 29 수정원고 접수일: 2011. 5. 17 게재확정일: 2011. 5. 19)

참 고 문 헌

- Anderson, Margo(1988), *The American Census: A Social History*, Yale University Press.
- Atack, Jeremy and Peter Passell(1994), *A New Economic View of American History*, 2nd ed., Norton.
- Becker, Gary(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69, March/April, 169-217.
- Carter, Susan *et al.* eds.(2006),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Earliest Time to the Present: Millenium Edition*, Vols. 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ter, Susan and Richard Sutch(2011), "Autobiography of the Millennial Edition, 1993-2006," mimeo.
- Chiswick, Carmel Ullman ed.(2006), "Origin of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in Susan Carter *et al.*, eds.,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 Earliest Time to the Present: Millenium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l. 5, Appendix 3, 819-24.
- Djankov, S., R. La Porta, and F. Lopez-de-Silanes, and Andrei Shleifer(2003), "Cour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출판사명?
- Dills, Angella, Jeffrey Miron, and Garrett Summers(2008), "What Do Economists Know About Crime?" NBER Working Paper 13759.
- Dodd, Donald(1993),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states of the United States: two centuries of the census, 1790-1990*,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서울대, R 317.3 D661h).
- Engerman, Stanley and Robert Gallman eds.(2000),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the Untied States*, Vols.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gel, Robert(1964), *Railroads and American Economic Growth: Essays in Econometric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 _____(2004), *The Escape from Hunger and Premature Death, 1700-21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laeser, E. and A. Shleifer(2002), "Legal Origi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ember.
- Goldin, Claudia(1995), "Cliometrics and the Nobe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 No. 2, Spring, 191-208.
- Kim, Duol and Ki-Joo Park(2011), "Cliometric Revolution in Korean Economic History: A Critical Review," *Australian Economic History Review*, forthcoming.
- Levitt, Steven(2004), "Understanding Why Crimes Fell in the 1990s: Four Factors That Explain the Decline and Six That Do No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8, No. 1, 163-90.
- McCloskey, Donald(1987), *Econometric History*, London: McMillan.
- La Porta, R., F.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and R. Vishny(1998), "Law and Fin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December.
- La Porta, R., F.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1999),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April.
- Steckel, Richard(1995), "Stature and the Standard of Liv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4), December, 1903-40.

- _____ (2008), “Biological Measures of the Standard of Liv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 No. 1, Winter, 129-52.
- U.S. Bureau of the Census,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 C., various years.
- _____ (1949),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1789-1945*, Washington, D.C.
- _____ (1960),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olonial Times to 1957*, Washington, D.C.
- _____ (1975),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olonial Times to 1970*, Washington, D.C.
- Walton, Gary(1971), “The New Economic History and the Burdens of the Navigation Acts,” *Economic History Review* 24, No. 4, 533-42.
- Walton, Gary and Hugh Rockoff(2005), *History of the American Economy*, 10th ed., Thompson.
- Worcester, Kenton(2001),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23-1998*,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http://www.ssrc.org/workspace/images/crm/new_.

[Abstract]

Evolution of the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Duol Kim*

The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Millennial Edition was published in 2006. This massive work consisting of five volumes, over four thousand pages includes various historical statistics on U.S. economy and society. Compared to *the Bicentennial Edition* published in 1975, *the Millennial Edition* has better contents and extended coverage, which reflects the achievement of U.S. economic historians. I reviewed how *the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has evolved and what lessons this process has on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Keywords: *The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Th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JEL Classification: N01, N91

*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Adjunct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E-mail: duolkim@kdi.re.kr

_ |

| _

| _